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6월 28일(금)

...(음력 5월 23일)...

Пятница

28 июня 2024 г.

№ 25 (1209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23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35회 전 러시아 올림픽의 날을 대규모로 기념했다. (관련 기사 3면)

(촬영 이예식 기자)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은 '청년의 날'로 올해는 6월 29일에 기념하게 됩니다. 청년의 날은 젊음, 대담한 계획, 흥미로운 발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래의 지역은 그 지역 주민의 개별적 성과들로 형성됩니다.

우리 사할린 지역에는 재능이 많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이 배우고, 일하며, 창작에 종사하고, 공공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의 청년들이 고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사할린 테크' 캠퍼스를 건설하고, 사할린 지역 선도기업들을 위한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창의적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청년 가정의 자녀출산을 도우면서 새로운 세대와 함께 우리는 사할린 지역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의 청년 여러분! 청년의 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너그럽게 나누는 에너지와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감사드립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할린과 위대한 러시아의 행복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십시오! 그러면 행운과 성공은 여러분 편이 될 것입니다!

사할린주 정부

사할린주, 2024년 여름 건강캠프에 학생 2만8천 명 이상 참가 예정

사할린주에서 학생 여름 건강캠프가 시작된 가운데 학생들의 여름 휴식에 대해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이 6월 25일에 열린 주정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올해 여름캠프에는 지난해에 비해 1,300명이 많은 총 2만 8천 386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여름 캠프는 사할린 지역을 비롯해 사할린 경계 밖의 지역에서도 조성된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학생들의 교육과 휴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캠프는 사할린 전 지역에서 조성되고 있다. 여름방학기간에 캠프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오락과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지도자들에게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애국교육과 주제별 교육일정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교육부 장관은 2024년 건강캠프에 사할린과 쿠릴의 학생들 3만2천여 명이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사할린주에 364개의 캠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1만5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캠프로 떠났다.

사할린 지역에서 휴식과 더불어 지역 교육부는 국내 다른 지역들에서 학생들의 휴식을 조성했다. 사할린의 초등학생들은 전국 명성 있는 캠프 일정에 참가하고, 국제아동센터인 '오케안', '오를료브', '스메나', '아르텍', '알리예 파루사'에도 참가하는 가운데 방학 초기부터 이미 228명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교육부 장관은 "오늘 벌써 여름 건강캠프의 첫 일정이 마무리되었고, 시 외곽 및 학교 운동장에서 2차 캠프 일정이 시작되었다."

올해 러시아 연방 계몽부는 사할린주 밖으로 학생들의 휴식을 조성하기 위해 329개의 캠프이용권을 사할린 지역에 배당했다. 게다가 우리는 추가로 자리를 얻기 위해 큰 작업을 진행하여 35개 여유의 캠프이용권을 얻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할린주의 15개 지역들에서 250명의 학생들이 모스크바의 전 러시아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러시아' 국제 전시-포럼에도 방문했다.

(3면에 계속)

단신

사할린주 공공장비, 친환경연료로 전환

6월 26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극동 포럼이 시작됐다. 포럼의 일환으로 생태환경보호와 관련된 장비를 비롯해 연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차량 전시회를 열었다. 원탁회의에서는 가스엔진 연료의 시장개발 및 전기자동차와 효율적 에너지의 수소 차량을 위한 제반시설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규모 포럼에 사할린주를 중심으로 극동지역, 중국, 벨라루스에서 2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친환경 교통수단 생산업체, 서비스업, 대리점의 전문가들과, 잠재적 소비자(기업 및 정부)들이다.

포럼 전체회의에서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이들을 환영한 가운데 포럼의 일환으로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20대 이상의 친환경 차량들이 전시되었다.

극동 언론정상회담 2.0,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

7월 4일과 5일 양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극동 미디어 삼미트(극동 언론정상회담) 2.0'이 개최된다. '사할린주의 발전과 사할린의 정보단체'가 행사의 주요 주제이다. 극동 언론 정상회담은 2014년부터 항상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어왔으나 이번에는 장소를 변경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 행사에 기자들, 블로거, 홍보 전문가, 러시아 방송업계의 우수 전문가, 러시아를 비롯해 해외 대중정보 다수 매체들의 대표단이 모여, 새고려신문사도 이에 참가한다.

사할린주 아파트 전체, 지하실 수리

발레리 리마렌코의 지시로 아파트들의 모든 지하실을 수리할 계획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다세대아파트 지하실 수리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회사는 지역예산의 지원으로 지하실에 방수 보완작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2025년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사할린 지역에는 3천 개 이상의 지하실이 있어 각 지방자치체에서는 지하실의 상태와 수리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후 수리작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된다.

사할린주, 지역들의 경제적 잠재력 평가에서 상위 35 순위에 올라

국민공동체개발재단의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들 35 순위에 사할린주가 올랐다.

이는 2024년 1/4분기 동안 러시아 연방 국제청과 연방 통계청의 정보자료를 토대로 순위가 작성되었다. 최상위 순위에는 모스크바와 한티-만시스크 자치구와 야말-네네츠크 자치구가 올랐다. 평가 목록으로 납부된 부가가치세 금액, 지역 평균 근로임금, 기관과 기업의 손실 금액을 뺀 총수익 등을 고려해 작성됐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6월 29일은 청년의 날

현재 청소년 역사캠프 준비 중입니다

러시아에서 청년의 날을 작년 부터 6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기념한다. 이날을 맞아 본사 배순신 기자가 사할린주한인청년회 오 블라디미르(38세)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청년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2023년 11월에 사할린주 한인 청년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 회장이 되기 전에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함께 하던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주 여성회와 공동으로 어머니의 날 행사를 진행했고, 지속적으로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주최하는 음력설, 광복절 행사와 '김치' 축제 진행을 협조하고 있고, 1세 어르신 '건강관리'프로그램도 돕고 있습니다. '사할린한인 청소년역사캠프'는 몇 년 동안 돕는 가운데 3년째 주 한인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엔 오 회장은 최근 2년간 청소년 역사 캠프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 네, 올해에도 역사캠프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참가 신청 모집 중입니다. 전에는 10-17세의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최근에는 14-17세의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25명 정도 모으고 이들은 오

호츠크에 마을에 있는 휴양소에 머물면서 사할린한인역사에 대해 배우며, 한민족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는 시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사할린한인역사 시간으로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 있는 '망향의 탑'과 포자르스 코예촌 근처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를 방문하고, 한민족 문화 관련 수업과 활동교실은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펼칠 예정이며, 오락 및 레크레이션 시간은 휴양소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바로 이 역사캠프를 실시하면서 바라는 것은 한인단체들이 하는 행사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하고,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한민족 문화와 예술에 호기심을 가졌으면 하고, 그리고 세대 간 소통이 잘 되길 희망하며 캠프 청소년들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네, 최근 주한인협회의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는 어머니의 날 행사, 3·8절 행사 등 찾아가 때 많은 청소년 봉사자 볼 수 있었습니다. 섭외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 캠프 통해 인연을 끊지 않고 활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우리는 '도브로.루'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어 아이들을 단체 활동에 유치해요. 잘 아시다시피 '도브로.루'플랫폼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대규모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 670만 여명, 10만 개이상 단체가 등록돼 있거

든요. 이를 통해 찾은 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봉사활동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대학에 입학할 때 가산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텔레그램과 왓츠앱에도 따로 채팅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사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현재 한인청년회가 단체로서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데 임원은 몇 명입니까?

- 현재 우리 단체의 임원은 11명입니다. 이들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청소년은 아마도 40-50명 정도입니다.

- 제가 오 블라디미르 회장에 대한 기사를 5년 전에 취재했었는데 그 동안 여러 변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족 삶도 그렇죠.

- 네, 맞아요. 기사가 게재될 때 제가 사할린국립대학교의 공학전문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는데 현재 첫 일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전문학교에 취직한 이유는 그쪽에서 가족을 위한 사택을 제공하기 때문이었었는데 차차 보급자리 문제가 해결되면서 일 자리를 바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교 교사를 하면서 처음엔 시간 강사를 하다가 이미 2년째 완전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14중학교 수학교사로 임용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9,10,11학년 고등



반 학생들을 맡았다가 작년 9월부터 처음으로 중등부 5학년생들을 맡게 되었어요. 좀 힘들었어요. 이들의 태도와 반응이 고등부 학생들과 영 다르니까요. 차차 적응하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엄격한 스타일도 아니고 소리 높이는 것도 싫어하니 이들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걸 지켜보는 거죠. 영 안 될 때에 말을 하는 거죠.

수학 수업 외에는 담임을 담당하지 않고 대신 '세제위이 고로드(도시 전산망)'학교 전자도시, 홈페이지를 담당합니다.

학교에는 항상 할 일이 많아요. 이것저것 항상 뭔가 자주 터져요.

사실 제14호 학교로 옮기면서 시간적으로 사회활동에 전념하기가 보다 어려워졌어요.

- 그 동안 셋째 자녀도 보셨다고요?

- 네, 작년 9월에 셋째 딸을 보게 되었어요. 삶이 좀 바빠졌지만 아빠

로서 행복합니다. 그 전에 주택담보로 새 아파트 집도 구했습니다. 삶에 여러 면에서 변화가 있었죠.

- 제가 알기엔 청년 회장을 맡게 되면서 모스크바에 있는 행사에도 참가했다고요.

- 네, 작년 12월에 모스크바에 개최된 CIS 지역 제8회 '차세대 리더'포럼(FLC Re-Union CIS)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대표들을 보낸 지역이 사할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모스크바 고려인 청년운동 단체에서 기브리드 행사를 개최했는데 저는 사할린 청년 단체 대표로서 민족정체성 섹션에 참가했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단체 지도자로서 좋은 경험을 받았어요. 이 행사 일환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오리지널 게임을 했는데 이 게임 작성자가 30대의 사할린 출신 이순철 의사였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 청년회의 회장으로서 청년회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하나요?

- 저는 청년회가 차세대 간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한민족 문화, 전통, 풍습 교육에 관한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하고 있는 자체 행사가 있는지요?

- 아직은 말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젊은이들을 위한 콘퍼런스를 열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지금은 우선 역사캠프를 하고, 다음엔 광복절 행사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 다시 한번 청년의 날 축하드리고 모든 기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 저 모

우리 집 과자 축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개최

7월 8일 가족, 사랑, 충실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파이가 익었다>우리 집 제과 축제가 열린다고 주정부 측이 전했다.

제과 축제는 7월6일(토) 14시에 작은 박람회 형태로 열려 사할린 주민들은 가정식 제과와 차, 허브차, 크바스, 집에서 만든 설당에 절인 과일을 판매한다.

주최 측은 '가족이나 팀을 이루어 축제에 참가하십시오.'라고 전했다.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домашней выпечки

8 июля ко Дню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ведут Фестиваль домашней выпечки «Пироги поспели».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Кулинарный праздник состоится 6 июля в 14:00 в виде небольшой ярмарки, где сахалинцы будут продавать домашнюю выпечку, чай, травяные сборы, квас, компот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Участвуйте семьей или соберите свою команду», - пригласили в сообщении.

가가린 시공원에서 사할린 요가 축제 열려

사할린 요가 축제가 제5회 전국 올림픽의 날 기념의 일환으로 유리 가가린 시공원에서 개최되었다고 지역 스포츠 부가 전했다.

곳은 날씨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에 300명 이상이 모였다. 방문객들은 중국의 기공 입문, 명상수련, 자문자답 훈련(셀프코칭:Self-coaching), 호흡법 등 기타 수련을 익혔다. 누구나 중국의 다도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고, 행사에는 도쿄

올림픽 3x3 농구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올가와 예브게니아 프롤킨니, 아나스타시아 로구노와가 참석했다. 이들은 웨르흐네에 호수 산책로들을 따라 나무를 심는 일에도 참여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йоги состоялся в парке Гагарина

В парке имени Юрия Гагарина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XXXV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дня состоялся Сахали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йог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Не смотря на неудобства, вызванные плохой погодой, в парке собралось более 300 человек. Гостей ждали ознакомительные практики Цигун и медитации, практики самокоучинга, практики по дыханию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ли по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итайской чайной церемонией. Кроме того,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серебряные призёры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Токио по баскетболу в формате 3x3 Ольга и Евгения Фролкины, а также Анастасия Логунова. В конце гост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осадке деревьев в честь нескольких пешеходных дорожек у озера Верхнего.

2024년 사할린 주민들, 장애아 돌봄에 3000일 이상의 휴일 받아

2024년 사할린 지역의 사회기금이 장애아를 둔 일하는 부모들에게 3000일 이상의 휴일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총 1,985만6천 루블리에 달한다고 사할린주 러시아 사회기금 측이 전했다.

장애아를 둔 일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은 1달에 4일의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휴일에 대해서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면 사회기금에서는 이에 따라 평균 근로임금 규모로 상환을 한다. 러시아 사회기금 사할린 지부의 마리나 아글리울리나 지부장은 "추가 휴일은 1달간 연휴로 받거나 각기 다른 날짜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휴일들을 쌓아두었다가 1년에 한 번 24일간을 연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연속 휴일을 받는 일정 조정은 고용주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휴가는 일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가

정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취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가정에서 부모가 둘다 근로에 나설 경우 추가 휴일 수는 부모들의 재량에 따라 나눌 수도 있다.

Свыше трех тысяч выходных дней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с ОВЗ получили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в 2024 году

За 2024 год Соцфонд по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оплатил работающим родителям дет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чуть больше трех тысяч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ыходных дней. Общая сумма компенсаций составила 19 миллионов и 856 тысяч рублей,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СФР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ющий родитель, опекун или попечитель ребенка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за один месяц может получить четыр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ыходных дня. Такие дни оплачивает работодатель, а следом компенсирует Соцфонд в размере среднего заработк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ыходные дни можно взять подряд или в разные даты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Также их можно "накапливать",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до 24 дней подряд один раз за календарный год. В этом случае нужно согласовать с работодателем график получения такого отпуска», — пояснила управляющий Отделением СФР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рина Аглиули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выходными мож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один из работающих родителей, даже если второй родитель в семье не трудоустроен. Если в семье работают оба, т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ни могут быть разделены между ними по их усмотрению.

사할린 주민들, '러시아' 상설 박람회장에 투표로 사할린을 지지할 수 있어

모스크바 국민경제성과 상설 전시회장에서 '러시아' 국제 전시-포럼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 러시아 지역들의 전람회개설되었다. 이에 누구나 우수 기획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도 자신의 지역을 지지하고, 투표할 수 있다.

(8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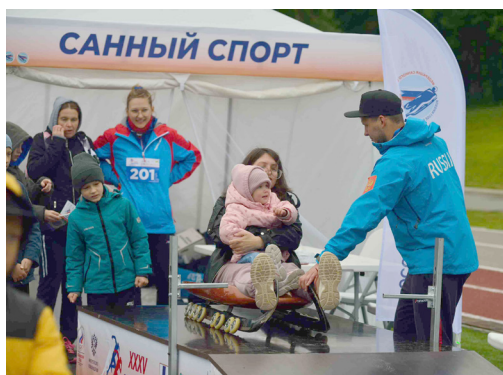
사할린에서 전 러시아 올림픽의 날에 5천 명 이상 참여

6월 23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 35회 전 러시아 올림픽의 날을 대규모로 기념했다. 행사의 방문객들을 위한 행사로서 시연 공연, 상호 작용, 올림픽 챔피언들의 사인회, 30개 이상 스포츠 종목의 체험교실이 열렸다. 이 행사는 <인구통계학> 국가기획인 <스포츠 - 생활의 표준> 지역 기획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이날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스타니슬라브 포즈드냐코프 위원장은 "우리 큰 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조성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는 러시아 올림픽의 날 기념 역사상 처음이다. 우리는 여러 해 걸친 올림픽 경기의 챔피언들과 수상자들 20명이 넘는 대규모 올림픽팀을 이루어 여기에 와서 행사장을 둘러 보고, 사할린의 선수들과 얘기를 나눴다. 물론 영광의 챔피언들과 우리 어린 올림픽 예비선수들과 상호작용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며, 이는 우리 스포츠 기념일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상트페테르부르크, 쿠르스크, 노워로시스크 등의 다른 도시들에서 행사가 개최되었지만 올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가 전국 올림픽의 날 기념의 주요 행사장이 되었다. 사할린 주정부 블라디미르 유슈크 부총재는 "올해 전 러시아 올림픽의 날 기념을 사할린주에서 축하하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다. 이는 스포츠의 발전과 스포츠 준비계획의 선두지역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증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기존 스포츠 종목들과 새로운 스포츠 종목들을 위한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대중화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요약했다.

이날 기념의 일환으로 2002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종목 챔피언 알렉세이 야구진, 올림픽 수중발레(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종목 3관왕인 알라 쉬스키나, 2020년 제32회 도쿄 올림픽 펜싱 종목 챔피언 아델리나 자기둘리나, 핸드볼 종목에서 2016년 제31회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 챔피언 이자 2020년 32회 도쿄 올림픽의 은메달리스트인 블라들레나 보브로브니코와 선수, 2016년 31회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 경기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 체조 종목을 비롯해 기타 종목에서 2020년 32회 도쿄 올림픽의 챔피언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했다. 명성 높은 스포츠 선수들과 만남을 가지는 가운데 5천 명 이상의 사할린 주민 및 방문객들이 이들의 활발한 활동에 만나고자 모였다. 피겨스케이팅 종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알



렉세이 야구진은 "이 대규모 행사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합류한 것은 정말 대단하다. 이는 바로 여기가 국내 가장 스포츠적 지역임을 말해주고 있다.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향한 관심, 그리고 많은 경기장들은 스포츠 축제와 건강한 생활방식을 상징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근로와 방어 준비 게임>지역 간 축제의 예선 경기와 육상경기, 국제 요가의 날을 기념하는 요가축제가 진행됐다.

전 러시아 올림픽의 날은 '올림픽 국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프로그램의 가장 대규모 행사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 창립일인 6월 23일은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국제올림픽의 날로서 러시아 올림픽의 날이기도 하다.

러시아에서 올림픽의 날은 1990년부터 국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매해 참가자 수만 100만 명이 넘는다.

(촬영 이예식 기자)

사할린의 씨름선수 로만 파닌, 연변 민족식씨름 국제초청경기에서 2등 차지

2024 연변 민족식씨름경기 및 국제초청경기가 지난 6월 13일 ~ 16일까지 4일간 중국 연길에서 펼쳐졌다. '영휘컵'연변 민족식씨름 국제초청경기에 중국, 한국, 러시아 등지에서 7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고 '영휘컵' 연변 민족식씨름경기에 50여 명의 연변 씨름의 고수들이 승부를 다투었다고 알려졌다.

러시아에서는 선수 총 6명(사할린 2명, 하바롭스크 2명, 블라디보스토크 2명)이 대표로 출전했는데 사할린주에서는 사범과 대표를 포함해 총 4명이 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사할린주 씨름협회 춘 알렉세이 회장이 전했다.

'영휘컵'연변 민족식씨름 국제초청경기 체급별 87킬로그램 이하 종목에서 사할린 선수 파닌 로만이 최종 결승전에서 한국의 씨름선수 김정 훈에게 지면서 준우승(2등)을 차지했다고 춘 알렉세이 회장이 소식을 전하며 기뻐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경기 참가 경험은 선수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춘 회장은 한국 전통 스포츠인 씨름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면서 사할린에서 계속 씨름을 발전시킬 생각이라고 표명했다.

(배순신 기자)

(사진: 사할린주씨름협회에서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 아이큐(IQ)>지수 순위에서 1위 차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2023년 대도시들 가운데 <도시들의 아이큐 (IQ)> 지수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페름에서 열린 '스마트 시티(똑똑한 도시)' 개발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 5회 국제 포럼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에 총 235개 대도시들의 순위가 매겨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이미 몇 년째 연속 기획적 운영과 효율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기획 시행과정의 최적화와 여러 과제들의 실행에 시간 단축으로 80개 이상의 기획들이 완료되었다.

우수 기획 중 하나는 <비알론> 차량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이를 통해 1년에 1,600만 루블리까지 비용이 절감되었고, 이 시스템으로 도시 차량에 대한 통제를 비롯해 온라인 교통 모니터링과 물류의 최적화가 크게 개선됐다.

도시에서는 4000대 이상의 감시카메라와 '국민 경찰' 100대 단말기 설치를 포함해 <안전한 도시> 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전한 도시'체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철에 교통 및 도로 상황을 감독하고 있다.

새고려신문 창간 75 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고려신문사는 문예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량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으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시고.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사할린주, 2024년 여름 건강캠프에 학생 2만8천 명 이상 참가 예정 (1편의 계속)

이 방문단에는 올림픽아드 및 창작 경연의 우승자들, 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학생들과 성적 우수자들, 특수군 사작전 참전자들의 자녀들과 불우환경의 학생들을 초대했다. 모스크바 박람회장의 전시-포럼 방문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위한 도심 구경 및 문화-오락 프로그램이 조성되었다.

도시 외곽 및 학교 부근에서 진행되는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과 건강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 발전. 성취' 개선된 조사서비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할린주 사회복지부는 학부모들과 다른 법적 대리인들에게 학생 캠프에 독자적 이용권 구입 금액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교육부는 여름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위해 5만7천 루블리에서 8만4천 루블리까지 정도의 금액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올해 사회적 계정을 이용해 지출상환에 따른 시범이 실시됐다. 6월 1일에는 선불로 총 2,290만 루블리에 달하는 320개의 캠프이용권을 발급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еальность и потенциал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4 июня — ИА РУСКОР

В СПбГУ состоялась очередная онлайн-семинар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бочей группы «Экономика, торговля и ресурсы», на котором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вух стран в текущей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риветствуя его участников, ректор СПбГУ, член-корреспондент РАН Николай Кропачев отметил, что 7 июля исполнится 140 лет со дня подписания договора о дружбе и торговле — первого официального договора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ей и Кореей. И сегодня, несмотря на существующие сложности, наши страны продолжают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язи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 том числе развиваются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Он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сохраняя и поддерживая двусторонний диалог,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могут преодолеть трудности и найти новые пут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форума ДРПК, экс-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и Кюхён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продолжения диалога вопреки всем сложностям, с которыми страны столкнулись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 отметил, что перед экспертами обеих стран стоит задача найти решения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х, серьезных глоб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таких как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глобальных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и реорганизация цепочек создания стоимости, цифров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и т. п. Господин Ли Кюхё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сегодняшняя конструктивная и плодотворная дискуссия экспертов станет еще одним ценным вкладом в достижение благородной цели устойчивого и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В Докладе старшего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Центра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Китая и современной Азии РАН Лады Семиной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вопросы дальнейшего пут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текущей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нмин Ли Санчжун говорил о разработке стратег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одготовке к послевоен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Россией. Об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обсуждаемых тем фрагментации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говорили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СПбГУ Сергей Сутырин и доцент СПбГУ Ольга Трофименко, рассмотревшие вопросы современных тенденций развития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 свете возможных последствий дл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анкции-2022 негативно повлияли на показатели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товарам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ключевым статьям экспорта и импорта. Некоторые значения сократились до нуля, как в случае импорта сырой нефти. В целом, сокращение объемов товарного экспор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ю в 2023 году в сравнении с 2021 годом составило 1,6 раз; общий объем импорта сократился в 1,95 раз за э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должил рассмотрение вопросов взаимных торговых санкций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содействия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KOTRA) Пак Чивон. Он высказал мнение, что снижение импорта из России объясняется, скорее всего, диверсификацией импортеров-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который и дальше будет существенно сокращаться. Не стоит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развитии тех сфер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ые уже были опробованы, а находить новые точк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где у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есть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Завершая семинар, доцент Елена Соколовская в соавторстве с профессором Сергеем Белозеровым представили доклад на тему «Особенности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товарам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В целом, как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артнер по экспорту, Россия в 2023 году была на 25 месте среди всех внешнеторговых партнер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огда как в 2021 году она была на 12 месте. С товарным импортом аналогичная ситуация: 18 место в 2023 году и 9 место в 2021 году.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го периода наблюдается дефицит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импорт превышает экспорт, что обусловлено, прежде всего, существенными объемами импорта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из России.

В панельной дискусс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им Ёнстик (профессо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аннин-Вончжу), доктор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МЭМО РАН) Александр Федоровский. Ли Тэсик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стратегии будущего Тхэчжэ, Марина Кукла,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Восточный институт ДВФУ), Ли Сону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овместн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морской логис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мор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KMI)).

Ученые сошлись во мнении, что уже сейчас необходимо думать о стимулах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начинать готовиться к новым форма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вете общих интересов во многи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особенно в сфере развития судоходства, а также в полной мере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тенциал расшир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отношений.

В Хабаровске прошла конференция «Православие и корейцы на рус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этом году в России отмеч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й юбилей — 160 лет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Согласно архивным источникам, царский поручик Рязанов в официальном рапорте на имя военн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П.В. Казакевича сообщал, что на росси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в долине реки Тизинхэ поселились корейцы и прилежно занимаются земледелием. Поручик просил разрешения открыть им сбыт зерна, построить мельницу и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Дата рапорта Рязанова — 21 сентября 1864 года — была в 1914 г. признана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Приамурского края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й даты для празднования 50-летия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В прошлый четверг, 20 июня, в Хабаровске прошла конференция «Православие и корейцы на рус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оторая была приурочена к 160-летию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АКОДВС) и Хабаровская духовная семинария.

Работа конференции началась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х слов Митрополита Хабаровского и Приамурского Артемия (зачитал иеромонах Николай), заместителя мэра Хабаровска Дениса Митрофанова, руководителя Славя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ославного общества священника Александра Сона,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а Дарковича и президент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Владимира Бейка.

Все выступающие отметили ва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мероприятий. В своем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Александр Даркович заметил, что это второе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обы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истории миграции в России (первое посвящалось российским немцам).

Отдельное приветствие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иума Совета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Совета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оссии и института э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РАН прозвучало от Владимира Зорина,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ссии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межрелигиозным отношениям и миграции. Он также выступил с доклад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и укрепл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ых ценностей».

Владимир Бейк в своём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отметил:

— Мы —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ак и все россияне, устремлены к переходу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иной цивили-



лизованный уровень к созданию такого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торое могло бы способно жить в условиях современности, в условиях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а. Наверное, и в этом проявляется один из важнейших компонентов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звучали 12 докладов от ученых, аспирантов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из Москвы, Хабаровска, Алматы, Биробиджана, Читы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ченые, участвовавшие в конференции, анализировали опыт первонач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отмечая при этом, что этот анализ может быть очень полезен при оценке современных 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Один из докладчиков напомнил, ч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ДФО есть единственный в России памятник переселенцам в нынешние ЕАО.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роли православия в их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и т.д.

С докладом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а сахалинская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Ее выступ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религиозные практики XX века» было посвящено сложной теме — роли религии 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сторик отметила, что,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корейских сообществ России, влияние православия на сахалинскую общину не велико. Это обусловлено особенностями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 и связям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откуда мигрировали протестантские миссионеры и привлекали корейцев в евангельские и пресвитерианские церкви.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отметили, все доклады были интересны и содержательны.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шла в позитивном и дружеском формате, участники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ить плодотво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ошел в Николаевске

23 июня в городе Николаевске Волго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с большим успехом прошёл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свящённый 16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Николаевский район — одно из мест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волгоградских корейцев.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прибыла сюда из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ачале 1990-х годов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спешно занимается земледелием.

Душой и глав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Дн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ст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николаевских корейцев, уроженец колхоза им. Энгельса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им, чьими стараниями юбилей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евратилось в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Николаевска и района.

В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 М.Ф. Туликова (директор — Людмила Козориз) прошла встреча с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Жанной Сон, которая рассказала читателям о причинах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и Дмитрием Шином.

Затем в музее краеведения «Земля-Космос» (директор — Любовь Богатырёва) была открыта выставка произведений художников из КНДР. Свои картины представила народный деятель искусст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 Хян А. Открыл выставку советник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России Ким Чер Хо.

И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Николаевска и района стал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Самый большой зал кинотеатра «Космос» в этот день был полностью заполнен зрителями. На сцене с большим успехом прошли выступления артистов николаевского ДК «Россиянка», волгоградск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школы танцев «Хвасон» (руководитель — Наталья Ли),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Чинсоль», KCG и HWAU, московского ансамбля «Кымган» (руководитель — Людмила Ли).

В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глава Николаевского района Анжелика Грибеникова, мэр г. Николаевска Александр Макеев, председатель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Единство» Феликс Ким,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волгоградских корейцев Андрей Пак и другие.

Ассоциация волгоградских корейцев планирует продолжить празднование 160-летия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в других районных центрах Волго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https://t.me/saramko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НДР оценивает ущерб от действий США в 78 трлн долларов

25 июня Институт американ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опубликовал «Белую книгу о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содержащую «исторические факты о злодеяниях, совершенных США», -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Публикация приурочена к 74-й годовщине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1953 годов. В документе говорится, что США «расширяли и усиливали ядерные угрозы и шантаж»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 1950 года, что отрицательно повлияло 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страны.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были убиты 1.247.870 граждан КНДР, 911.790 человек были похищены, 391.740 человек пропали без вести, а материальный ущерб от человеческих потерь составил 16,5 тр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Общий ущерб, нанесённый КНДР в период с 1945 по 2017 год из-за терроризма, биологического и хим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а также вооружённых инцидентов, составил 29 трлн 354 млрд долларов. Если сложить все убытки, включая неспособность нормально управлять экономикой, то сумма ущерба оценивается в 78 трлн 203 млрд долларов. Однако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извиниться и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свои грехи, США совершают незаконные и безрассудные действия, нарушающие суверенитет КНДР», - говорится в документе.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жара на заводе в Хвасоне погибли 23 человека

23 человека погиб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жара, уничтожившего завод аккумуляторных батарей компании Aricell в Хвас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 45 километрах к югу от Сеула. 18 погибших –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среди которых 17 граждан Китая и один гражданин Лаоса. Тела погибших отправлены в морги пяти больниц Хвасона. Пока удалось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дву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тела остальных пострадали в огне, и для их идентификации потребуется анализ ДНК. Восемь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травмы, двое из них - серьёзные. Пожар начался в 10:31 утра 24 июня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здания завода. Огонь удалось взять под контроль пять часов спустя после начала пожара, а на его окончательную ликвидацию ушло около 22 часов. Согласно первоначальным выводам экспертов, возгорание произошло на участке хранения и упаковки литиевых батарей, поставляемых военным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FM-рациях. Литий считается относительно стабильным материалом, обращение с которым не связано с особ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Однако он может вызвать искры при контакте с ржавым металлом и взорваться при наличии горючего газа в воздухе. Литий должен храниться в отдельном сухом помещении.

Ещё 18 центров имени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получают господдержку

Ещё 18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нтров имени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15 странах мира,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Эти центры специализируются на преподав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знакомстве иностранцев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В Непале и на Кубе такие центры открыты впервые, а в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Германии, Швеции, Италии и Австралии они работают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Тепер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имеют 256 центров в 88 странах,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стремлении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й популяр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Цены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растут в РК шестой месяц подряд

По данным Банка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1 июня, цены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ыросли в мае на 0,1%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месяцем. Рост, который продолжается шестой месяц подряд, вызван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подорожанием услуг.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рост составил 2,3%. Цены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являются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индикаторов инфляции, поскольку они влияют на цены, которые предприятия взимают с потребителей в предстоящие месяцы.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цены выросли в мае на 2,7%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Услуги подорожали на 0,5%.

В 2024 году ожидается рекордный экспорт автомобилей из РК

Экспорт автомобилей из РК достигнет в этом году рекордного рекорда. По прогнозу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он составит 74 млрд 70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5,4% больше, чем в 2023 году. Общая сумма экспорта автомобилей 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запчастей составит 98 млрд долларов. За первые пять месяцев этого года экспорт автомобилей вырос на 4,7%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30 млрд 800 млн долларов. Устойчивый рост экспорта автомобилей обусловлен высоким спросом на североамериканском рынке, а также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недорожников и гибридных моделей, - считают эксперты. Между тем, продажи автомобилей на внутреннем рынке, как ожидается, снизятся на 5,9% и составят в этом году 1 млн 650 тыс. единиц. Это вызовет сокращ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0,1% до 4 млн 240 тыс. единиц.

RKI

В Сеуле одновременно расследуют обвинения против бывшей и нынешней первых леди

Следователи прокура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казались в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й ситуац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они ведут следствие в отношении жен действующего и предыдущего президентов страны. При этом оппозиция и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обвиняют друг друга в политизации скандалов и попытках отвлечь внимание от других проблем.

Начало всей этой эпопее положил "скандал с дамской сумочкой", которую получила в подарок Ким Гон Хи - супруга ныне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Сам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л еще в сентябре 2022 г., но активно раскручивать его оппозиция стала тольк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Ким Гон Хи приняла сумочку Dior от знакомого пастора - этнического корейца из США. Стоимость подарка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3 млн. вон, или 2,4 тыс. долларов. Когда эти обвинения были озвучены, то Ким Гон Хи, которая до этого любила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зличных свет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резко исчезла из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Но это не помогло. Под давлением доминирующей в парламенте оппозиции и к большому недовольству президента прокуратура РК в итоге начала расследование. Сотрудники надзорного ведомства активно работаю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что подробно освещается СМИ.

Впрочем, вскоре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и у оппозиционных сил "есть проблемы по женской части".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установила, что в октябре 2018 г. жена предыдущего лидера страны Мун Чжэ Ина - Ким Чжон Сук - посетила Индию. Для этого был задействован президентский борт и потрачены средства из госказны на сумму около 400 млн вон (около 290 тыс. долларов). Официально это было совершено по официальному пригла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ндии, а экс-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в своих мемуарах не без гордости описал это как "первый случа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о стороны первой леди Кореи". Правда, у правящей консерватив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совершенно иное мнение на этот счет. Учитывая, что Мун Чжэ Ин, занимая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с 2017 по 2022 гг., представлял находящийся сейчас в оппозиции глав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тивников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о консерваторы быстро ухватились за появившийся шанс и обвинили жену экс-президента Муна в "турпоездках за госсчет" и растрате денег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ов.

В понедельник 17 июня депутат городского собрания Сеула Ли Чжон Бэ,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консерватором, подал в прокуратуру Цент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толи-

цы официальный запрос с требованием проверить на соответствие законам действия Ким Чжон Сук и обеспечивавших ее визит в Индию в 2018 г. чиновников. В прокуратуре приняли заявление, уведомив, что полноцен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начнется по этому делу с 19 июн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рокуратура РК ведет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как Ким Гон Хи - жены ныне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так и в отношении Ким Чжон Сук - супруги экс-лидер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Повторимся, что Юн и Мун представляют конкурирующие друг с другом два глав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лагеря Южной Кореи, а потому все эти скандалы сильно политизированы. Правящий лагерь обвиняет оппозицию в том, что "раздутым делом о сумочке" она пытается отвлечь внимание от проблем с законом у главы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Ли Чжэ Мёна. Оппозиция же теперь утверждает, что "скандал с туризмом первой леди за госсчет" высосан из пальца и является просто ответом на "дело о сумочке".

В отношении самой прокуратуры также хватает подозрений. Оппозиционеры уверены, что "дело о сумочке" не будет расследоваться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поскольку надзорное ведомство подчиня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у юстиции, то есть формально подконтрольно ныне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В этой связи оппозиция требует назначения независимого спецпрокурора, чье положение регулируется особым законом и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которого было бы сложно вмешиваться. Интересно, что с этим,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ов, согласно и большинство рядовы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также требуют тщательных разбирательств обстоятельств получения подарка от пасто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и сам президент уже высказались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в стиле, мол, "хватит и прокуратуры для такого дела". Но без новых скандалов не обошлось. По каким-то причинам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поменяли большинство следователей, которые занимались "делом о сумочке", чт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новые обвинения в адрес правящих сил в попытках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итуацию.

Результат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бывшей и нынешней первой леди могут сильно повлиять на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и в итоге - на расстановку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в стран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Сеул выявил Telegram-канал с продажей "военных секретов Южной Кореи"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начали официаль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 связи с выявлением Telegram-канала, в котором открыто предлагают к продаже военные секреты Сеула. Серьезность подхода следователей объясняется в том числе и тем, что недавно были выявлены факты утечки технологий создания нового корейского истребителя, чертежи которого также предлагают купить.

Как сообщили местные издания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точники в военном ведомстве, в мессенджере Telegram, который, как считается, обеспечивает более высокую степень защиты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был выявлен канал, где открыто заявлено: "Продаем военные секреты!" Данный канал существует с август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Если верить "шпионаж-бизнесмену", то у них можно купить технологии создания нов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олета KF-21, вертолета "Сурион", который уже находится на вооружении в арм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также прочие во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Кроме того,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в наличии" также и секретные документы, касающиеся совместных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х учений Freedom Shield. Маневры проводятся обычно ежегодно в марте, и в ходе них союзники отрабатывают действия на суше, в воздухе, море и в киберпространств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совместная следственная группа, состоящая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лиции и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ы РК, а также военной контрразведки уже начали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 отношении Telegram-канала, но пока не удается установить, кто стоит за ним.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также напомнили, что раскрытие воен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секретов карается тюремным сроком до 10 лет, либо штрафом до 1 млрд. вон.

Эксперты не исключают, что подобный канал является попыткой выманивания денег и в реальности не продает секреты, но власти Кореи тем не менее серьезно отнеслись к ситуации. Дело в том, ч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уже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при производстве истребителей KF-21,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аходятся на финальной стад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обкатки, а в перспективе должны стать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боевых самолетов ВВС РК,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мела место утечка секре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этом подозреваются как индонези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которые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цами реализуют данный проект, так и около десяти сотрудников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производител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Государство озаботилось молодым поколением

Сеул, 24 июня – ИА РУСКОР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гендерным вопросам Южной Кореи намерено впервые начать официальный опрос среди изолированных и затворнических подростков в рамках усилий по выявлению таких групп и разработке мер поддержки.

Под изолированными подростками понимаются те, кому не на кого положиться в случа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а затворническая молодежь —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остаются дома, не участвуя в какой-либо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прос,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до конца июля, направлен на то,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когда начинается период изоляции или затворничества, ег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и что ег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а также их распорядок дня,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активность и состояние сна. Министерств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результаты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мер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воими потребностями.

Оно проведет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опрос,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подходит ли человек для участия в официальном опросе, и отправит отдельную ссылку в текстовом сообщении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тем, кого определили как изолированную или затворническую молодежь. Опрошенным нуждающимся в помощи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 комплекс мер со стороны министерства, включающий консультации, лечение и помощь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й. По оценкам министерства, число изолированной или затворнической молодежи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140 000 человек.

Приемная кампания в СахГУ в этом году стартует уже в новом здании

Во время прямой линии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задали вопрос о плюсах обуч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мим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кампуса и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сейчас активно занимаются и обновлением материальной базы.

— У любого главы региона есть мечта, чтобы молодежь оставалась учиться, а затем и работать на малой Родине. Чтобы закрепить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молодежь, дать ей здесь перспективу и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модернизации СахГУ. И здесь речь идет не пр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общежития и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блока, а про перезагрузку всех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их осовременивание, привлечение к обучению будущи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 тех, кто задает тренды в своих отраслях,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 драйвером развития СахГУ станут новая водородная и передовая инженерная школа. А также проект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для отрасли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биотехнологий. Разумеется, будет готовить СахГУ и кадры для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еще долго считаться желанным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В вузе создается комплекс современных лабораторий, где студенты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и учиться рядом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едущих компаний.

Скоро пройдет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открытие нового офиса приемной кампании СахГУ), где абитуриенты смогут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университетом. Здесь им составят карьерный план, чтобы ребята понимали на кого учиться, какие нужны компетенции и какие их ждут перспективы в будущем.

— Бизнес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кладывать свои ресурсы и опыт, то же самое делаем и мы. Кампус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 это огром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Мы 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получили луч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на островах, могли самореализоваться и построить счастливые семьи и успешную карьеру, — подытож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должны сдать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а в 2026 —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ахалинТех. Еще до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ампуса на базе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откроют 10 современных лабораторий, которые такж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компании,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еся на добыче нефти и газа. В агропарке откроется лаборатория биотехнологии, которая будет вести разработку биологически активных добавок, улучшать микроэлементный состав продуктов. Там же заработает лаборатория по медицински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Больше 28 тысяч дете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сетят летние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лагеря в 2024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а летняя 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кампания. О детском лагерном отдыхе долож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кампания охватит 28 386 детей, что превышает показатели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1,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Отдых организован как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ак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 Мы уделяем немало внимания воспитанию и досугу наших детей. Детские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лагеря должны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ажно, чтобы на время летних каникул родители могли доверить своих детей вожатым, которые организуют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и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ы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кампани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ошу уделить патрис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и тематическим сменам,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доложила министр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сего в 2024 году в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лагерях отдохнут более 32 тысяч учащихс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области работают 364 лагеря, в которые уже отправились свыше 15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Помимо отдых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ло детский отдых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Ю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профильных сменах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етских центров «Океан», «Орленок», «Смена», «Артек», «Алые паруса». С начала отдыха там уже отдохнули 228 детей.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же завершилась первая смена в рамках летней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й кампании и стартовала вторая, где задействованы как загородные лагеря, так и пришколь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детского отдыха за предел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свещения РФ выделило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329 путевок. Тем не менее мы проводим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получению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ст, уже получили еще 35 квот, — расс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Ко всему прочему, с декабря 2023 года по июнь 2024 года 250 школьников из 15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ет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ую выставку-форум «Россия» на ВДНХ в Москве.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с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олимпиад, творческих конкурсов, активистов и отличников, детей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а также тех, кто остал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В рамках посещения выставки в Москве для детей организованы обзорные экскурсии по

городу и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безопасного и комфортного отдыха и оздоровления в загородных и пришкольных лагерях организованы опросы для детей и родителей на обновленном сервисе «Образование.Развитие.Успех».

Отметим,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родителям и другим закон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омпенсацию за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покупку путевок в детские лагеря. Также до начала летней камп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ело индексацию данной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 57 до 84 тысяч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введен эксперимент по возмещению расход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оциального счета. К 1 июня авансы выдали за 320 путевок на общую сумму — 22,9 млн рублей.

Залив Анива в 2025 году очистят от стоков

На прямой лини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звучал вопрос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Работы уже ведутся. В Аниве строят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мощностью 3 тысячи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а в Новотроицком — 7 тысяч.

— Я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в 2025 году сделать залив Анива чистым. Для этого уже построены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селе Троицком. Продолжаются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в Корсакове. Все 100 процентов стоков, в том числе промышленные, должны проходить полную очистку прежде, чем попадут в море,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в прямом эфире.

Жители Победино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из кранов периодически идет желтая вода. Губернатор адресовал вопрос министру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и Куприной. По ее словам, меры уже предпринят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ется разработка проекта, до конца 2026 года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 реконструкцию сист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селе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вс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лжны быть обеспечены чистой питьевой водой.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реконструировать сист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селах Правда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и Онор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Будет построено 32 километра сет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воды ощутят более 8 тысяч жителей Владимировки.

В 2025 году заверш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одозабора «Южный». В Охе в 2027 году будет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 водозабор и установлена станция водоочистки. До 2029 года пройдет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истем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селах Китовое, Виахту, Красногорск, Шебунино, Восход, Тымовское, Первая, Вторая и Третья пади, Дачное, а также реконструкция водозаборов со станциями очистки воды в Томари, Взморье, Соколе, Победино, Бошняково и Смирных.

Эколог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продолжили жител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оторые по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будет ли продолжена уборка акватории от затонувших судов.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должны утилизировать 18 объектов.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находятся судоподъемные работы у берего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на острове Парамушир, Корсакова и Невельска. Всего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поднимут 54 затопленных судна, которые мешают судоходству и портят внешний вид побережья островов.

Куль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возле новой сцены Чехов-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оют в начале сентября

В ход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субботнего объезд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а возле малой сцены Чехов-центра. Сдача и открытие объекта намечены на 8 сентября. Здание станет нов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различных театральных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Здесь же появится открытая терраса и кафе.

— Мы прикладываем много усилий для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Важно сдать новый объект в срок,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афиком, потому как открытие нов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танет очередным этапом в поддержке и развитии творче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зволит большему числу островитян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наслаждаться театральными постановками, выставками и музыкальны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 подел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тройплощадке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и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Нонна Лаврик.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а объекте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по подготовке территории застройки. Сейчас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изводят устройство плит и фундаментов. После подрядчик приступит к возведению металлоконструкции, кровли и стеклянного фасада. К сентябрю на объекте также проведу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 По плану к 8 сентября планируем сдать объект и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о проекту — это будет пристройка к основному зданию с кафе, зоной для экспозиц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стеклянного павильон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различных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мы учли все пожелания. Здесь также появится летняя терраса и освещение, в том числе фасадно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мы сняли брусчатку и вывезли на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По завершению устано-

вим обратно, — рассказал заказчик проекта.

Новое помещение появи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квера имени Рудановского, возле бывшего кинотеатра «Комсомолец». Пространство будет легко трансформироватьс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театральных капустников, читок, спектаклей малой формы, иных активностей, а такж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ыставок сахалин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В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спектаклей на площади новой сцены площадка буде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в режиме театрального кафе-буфета. Также по проекту из здания новой сцены будет предусмотрен теплый круглогодичный переход.

Отметим,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активное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 открываются репетиционные залы для занятий вокалом и танцами, для художников создают новые выставочные площадки и мастерские. Созданы новы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и эстрадно-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ы, музыкальный театр. Проходят мероприят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асштаба, такие как концерт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и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Недав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также активно строятся новые дома культуры и творческие центры. В этом году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ткроют цирк,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Современник», филиал Щукинского училища и акустический зал для симфонической музыки на базе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мый большой спорткомплекс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сдадут в этом году

Современный крытый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уже находится на стадии фасадных работ. Появление такого объекта позволит юным и взрослым сахалинцам заниматься мини-футболом, баскетболом, волейболом, единоборствами. Он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в сутки.

С появлением нов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оспитанникам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имени В.С. Ощепкова не придется ютиться в школьном спортивном зале. Он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в современных, оборудованных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залах. Такие ж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явятся и у всех александровцев, желающих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как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так и на любительском уровне.

— Новый ФОК станет спортивным ядром для целого района. В городе появятся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заняти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Словами невозможно описать, насколько важно его появление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круглый год. Убежден, что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поможет нам вырастить новых чемпионов, и надеюсь, что работы по ег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подойдут к финишной прямой, — поделился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спортшколы имени Ощепкова Андрей Мантуленко.

Двухэтажный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блоков. Первый и второй — предусмотрены как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бытовой корпус с малым универсальным спортивным залом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В третьем блоке разместят большой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зал с трибунами для игровых видов спорта — мини-футбола, баскетбола, волейбола. Также в нем расположатся зал единоборств и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тренерские комнаты, раздевалки и душевые.

Ранее,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муниципаль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а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спорта держать объект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и сдать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до конца 2024 года.

— Мы понимаем важность эт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для жителе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и строго следим за ходом работ. Были сложности с предыдущим подрядчиком, контракт с ним расторгли, теперь все идет в графике. Мы приложим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выполнить поручение губернатора и сдать спорткомплекс в декабр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Сейчас строители завершают демонтаж оставшихся от предыдущего подрядчика фасада и сэндвич-панелей, так как те пришли в негодность. Следующим шагом станет монтаж новых материалов и систем —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фасада, перегородок и вентиляции.

— Демонтаж старого фасада завершен уже более чем на 80 процентов, как и демонтаж сэндвич-панелей. Есть сложности в демонтаже последних из-за установки спецтехники, действуем предельно аккуратно. Уверен, что объект сдадим в срок,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ОО «Тенза» Алексей Тен.

Отметим, в 2024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озведение еще нескольких спортобъектов. Так, до конца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дадут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манеж на 400 мест с трибунами для зрителей и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с двумя бассейнами и трибунами на 1000 зрителей. Также завершат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бывшей средней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во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учебно-спортивный центр на 150 мест. В Троицком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откроется каркасный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на 57 человек в смену, а в Макарове заверша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ледовой арен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 알짜배기 기업 일본에 바치는 현대판 조공, 국정조사 추진"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 '제3자 변제',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극우단체의 소녀상 테러와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 필요성, '라인야후' 사태와 기술 주권 문제, 재일동포 교류와 조선학교 문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일 군사협력 문제 등 한일관계 문제가 산적해 있다.

6월 22일은 1965년 굴욕적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59년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2025년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을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행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올해 한일협정 59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와 한일관계를 진단하고, 한일관계 실천적 과제를 모색해나가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홍근, 이재정, 이수진, 이재강, 김용만, 김준혁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준형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 정혜경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한일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지구촌동포연대, 겨레하나,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토론에 나섰다.

"현재 한일관계는 총체적 난국 상태"

남기정 교수는 '한일관계 현황으로 본 한일 협정과 '신한일관계선언'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한일관계 현황을 진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파탄상태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속, 우익 교과서 검정 통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라인야후 사태의 이면에서 우키시마 승선자 명단 공개, 상그릴라대하에서 초계기 사건 봉합 등 총체적 난국의 한일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과 일본 인사들이 지난 5월 몽골에서 만나 북일국교정상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드러낸 한일관계의 근본문제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략전쟁이나 식민지배, 1965년 한일조약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정확한 대일인식이나 대응이 부재하고, 최근들어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미온적 반응,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외교의 축을 이동하는 등 국가정체성의 혼란과 보수진영 외교의 '착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1998년 '과거 직시-미래 지향'을 기본으로 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지켜져야 할 가치, 즉 '과거직시-미래지향',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포용적 국제질서' 등의 정신을 담아, 2025년 한일기본조약 60주년을 조약개정의 출발의 해로 삼고, 202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30주년에 새

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제3자 변제 해법'은 국가 정체성 흔드는 일"

이어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 과거청산 : 지연된 역사정의, 확장되는 부정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 시스템 곳곳이 매일같이 망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관계는 광복 이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한일 과거청산에 관한 법적 결론은 이미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그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즉, 일제에 의한 35년간 한반도 지배의 성격, 즉 불법강점인지의 여부는 논의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았으며, 불법강점에 따른 문제는 논의되지도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법적 판단에 있어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변한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3년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한일 과거청산의 역사와 법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대법원 판결이 확정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우리 행정부가 나서서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헌법이 선언한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그는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2015 합의'로 다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추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고 요구해야 하고 '국가 및 그 재산의 사법권 면제에 관한 유엔협정'에 가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록 교수는 "제2의 을사년"을 맞지 않도록 일본 정부로 하여금 불법강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게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으로 보이도록 해야하며, 불법강점에 대해 과거 두 차례의 사례가 있는 '국회 결의'를 추진해야 한다. 강제동원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집행되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전쟁위험 극복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자"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일 역사정의와 평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주재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등이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진상규명 활동 재개, 법 개정을 통한 정부 위로금 지원 현실화, 일본 피고 기업 자산 강제집행 및 신속한 판결,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자료 공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및 모욕 처벌법 제정, 라인야후 사태와 웹툰시장 공략 가능성 등 기술주권 사수,



▲ 제22대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올해 한일협정 59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와 한일관계를 진단하고, 한일관계 실천적 과제를 모색 해나가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윤종은

재일동포의 인권 보호와 차별성 해소, 사할린 동포 연구 조사 사업, '신한일관계선언' 중단 추진, 국회-시민사회 공동대응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후 박석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등장 이래, 2년 남짓 기간 한일역사정의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퇴행하였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사실상 포기하고 굴종적인 대일 외교·안보 정책을 일관되게 강행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위험을 극복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자주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 한 사과, 그리고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며 과거사를 직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백범김구의 증손자인 김용만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가 도를 넘었다. 대일 굴욕 외교를 정상화해 잃어버린 국익과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한일협정 체결 수십 년 뒤에도 여전히 여러 과거사 문제는 미해결 상태이다.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한 일본대사관 앞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굴욕이라 해도 과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일본에 매우 편향돼 있다. 굴욕외교에 반대한 6·3 항쟁 60주년도 기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일 외교 관련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고 이수진 국회의원은 "일본 정부는 전범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우리 정부는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굴욕적인 대일외교와 실정을 멈추어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일본은 여전히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우리 주권을 흔들고 있다. '라인사태'로 불리는 일본의 디지털 영토 침략은 한국의 알짜배기 기업을 바치는 현대판 조공이나 다름 없어 반드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여전히 현재형으로 겪고 있다. 일제 잔재 청산과 굴종외교를 중단시킬 국민적 의지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오마이뉴스, 2024.06.20)

세종학당 15개국 18개소 신규 지정 88개국 256개소로 확대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생 연 21만 6천명 돌파 올해 네팔, 쿠바 등 2개국 첫 진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과 함께 2024년 세종학당 15개국 18개소를 새롭게 지정한다고 6월 24일 밝혔다. 이로써 전 세계 세종학당은 88개국 256개소가 됐다.

이번 신규 세종학당 공모에서는 40개국 97개 기관이 신청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경쟁률인 5.4대 1을 기록했다. 한국어 교육과 국제문화 교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는 약 4개월에 걸쳐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최종 심사를 진행해 운영 역량이 우수한 18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신규 지정된 국가(도시)는 ▲네

팔(카트만두) ▲독일(베를린, 뷔르츠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스웨덴(스톡홀름) ▲우즈베키스탄(부하라, 지자흐) ▲이탈리아(팔레르모) ▲인도(벵갈루루) ▲중국(청두) ▲카자흐스탄(코스타나이) ▲쿠바(아바나) ▲크로아티아(스플리트) ▲태국(방콕) ▲폴란드(카토비체) ▲필리핀(일로일로, 케손시티) ▲호주(퍼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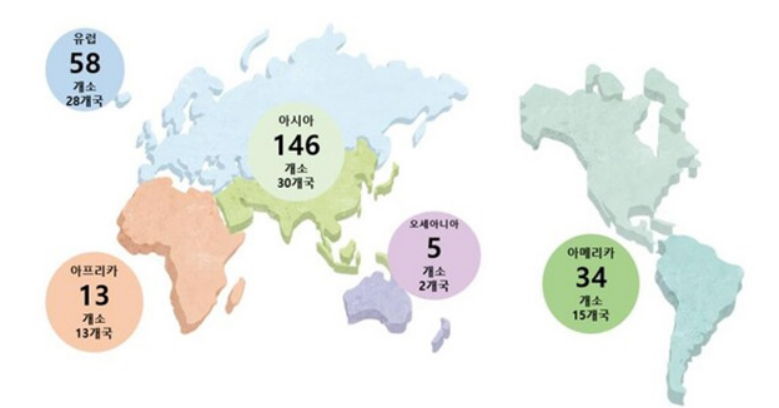
특히 현재 세종학당이 없는 국가 중에서 '네팔'과 '쿠바'가 처음 지정됐다. 네팔의 경우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로 매년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2월 우리나라와 수교한 쿠바는 다양한 문화 및 인적 교

류가 기대되는 나라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세종학당 18개소는 업무위탁계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6개월 동안 시범 운영 후 2025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한 수강생은 총 21만6,226명에 달한다. 이는 2022년 수강생 수 17만 8,973명보다 약 20.8% 증가한 수치다.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세종학당이 개설될 당시 세종학당은 전 세계 3개국 13개소, 수강생은 연간 740명의 규모에 불과했으나, 2012년 세종학당재단의 출범으로 한국어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결



2024년 6월 현재 전 세계 세종학당 현황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과 2023년에는 수강생이 21만 6천여명을 돌파했다.

문체부는 "한국어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 세종학당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 개선 방안을 지원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은 과감히 지정을 해제하는 등 세종학당이 내실 있

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8월에 권역별 세종학당 지원·관리 체계 강화계획을 담은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확산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사할린주도 자체 성과를 전람회에서 발표했다. 지역을 지지하고, 평가 순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누구나 도울 수 있으며, 국민투표는 2024년 7월 8일까지 전시회 공식 사이트에서 이뤄지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지도에서 사할린주를 선택하고 모든 부문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Сахалин на ВДНХ: островитяне могут поддержать регион в голосовании на выставке «Россия»

На площадке ВДНХ в Москве проходи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форум «Россия»,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представлены экспозиции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лучшие проекты может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ут поддержать свой регион и отдать голос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ла на выставке свои достижения. Поддержать регион и помочь ему занять высок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может каждый.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ходит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выставки до 8 июля 2024 года.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выбра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интерактивной карте и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все номинации.

러시아의 루블리, 대외경제활동 결제에서 1위 차지

주요 대외무역 결제의 70%가 러시아의 통화로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위안화와 루피가 거의 동시에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총결에 따르면 루블리는 러시아 주요 대외 무역 통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스베르방크의 이사회 아나톨리 포포브 부대표가 이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회사는 수출 및 수입을 위한 계도들을 설치해 수출입에 대한 물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다. 6월 12일 제재 조치는 인도 지점 은행의 업무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우리의 사업은 인도와 러시아 기업 간에 협력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루피

는 더욱 인기있는 통화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처음으로 루피 예금에 대한 수요도 생겼다. 예전에는 통용이 제한된 루피 같다는 용어는 움직이지 않는 그 루피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지만 지금의 루피는 반대로 러시아의 수출입 기업에게 루피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으며, 루피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Рубль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расчетах пр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и

Около 70% основных внешнеторговых расчетов проходят в валюте РФ. Остальные 30% почти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нимают юань и рупия. Уже по итогам 2023 года рубль занял место основной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валюты России.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Сбербанка Анатолий Попов.

"Наши компании наладили, что называется, рельсы для экспорта, импорта, решили все логистические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перед ними стояли. Введение санкций 12 июня никаким образом не повлияло на работу индийского филиала банка. Наша работа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партнер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компаниями из Индии и российского бизнеса. Рупия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популярной валютой... у нас впервые появился спрос на депозиты в рупиях. То есть, если раньше был такой термин, как "зависшие" рупии, то есть рупии "зависли", на них ничего нельзя сделать, то сейчас наоборот, у предприятий российских, импортеров или экспортеров, появляется избыток рупийной ликвидности, они хотят ее размещать", — отметил Анатолий Попов.

사기범들, '고스우슬루기' 사이트를 이용해 사할린 주민들의 돈 갈취

은밀한 개인정보나 은행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정밀한 사기수법을 이용하는 사기범들에게 사할린 주민들이 점점 더 많이 희생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자주 신뢰성을 주기 위해 '고스우슬루기' 포털을 이용하고 있다고 사할린주 내무국이 전했다.

쿠릴스크의 남성 주민(53세)은 연금재단의 직원이라 사

칭한 사기범을 믿어 900만 루블리 이상을 잃었다. 연금에 보 조금 등록을 구실로 사기범들은 피해 남성을 속여 '고스우슬루기' 메신저에서 코드를 빼낸 후 그의 개인정보와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며, '고스우슬루기' 사이트는 악한 사기범들의 도구가 되고 있고, 이들 사기범들은 여러 사이트를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여성 주민(37세)은 이전 직장에서 정보유출과 그녀의 이름으로 된 대출 등록을 믿고 '안전계좌'로 80만 루블리를 이체했다. 또한 오하의 남성 주민(59세)은 휴대전화 심카드(SIM Card)의 계약연장을 하려다 여권 정보 유출로 돈까지 잃어버렸다.

Мошенники крадут деньги сахалинцев, используя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и»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все чаще становятся жертвами мош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 изощренные схемы обмана,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банковским счетам. Особенно часто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используют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и» для убедительности.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53-летний житель Курильска лишился более 9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доверившись мошенникам,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лись сотрудниками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Под предлогом оформления надбавки к пенсии они выманили у мужчины код из СМС от «Госуслуг», после чего получили доступ к его личным данным и счетам.

К сожалению, это не единственный случай, когда «Госуслуги» становятся инструментом в руках злоумышленников. Однако мошенники не ограничиваются одним портал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37-летняя женщина перевела 800 000 рублей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поверив в «утечку данных» с предыдущего места работы и оформление кредита на ее имя. А в Охе 59-летний мужчина лишился денег и паспортных данных, пытаясь «продлить договор» на сим-карту по телефону.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нса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жинки

М²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